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5월 29일 (제115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나비효과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다. 아마존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 초기 사소한 일이 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나는 이 나비효과를 이번 춘계산상집회에서 발견했다. 바로 얼마 전 천국에 입성한 오치환 장로가 일으킨 효과이다. 오치환 장로는 이번 기도원 집회를 준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오장로의 뜻을 너무 잘 아는 터라 이번 기도원 집회 동안 어느 때보다 많은 먹거리를 가지고 들어왔고, 또 여기저기서 봉사에 참여했다. 특별히 음식 봉사, 설거지 봉사가 넘쳐났다고 한다. 다른 때 같으면 방송을 통해 봉사자를 모아야 했지만, 이번은 달랐다. 자원하여 ‘과라도 다듬겠다, 설거지라고 하겠다’라며 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오 장로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다. 오 장로의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작은 나비의 날갯짓과 같다. 내가 행하는 일과 행동은 극히 작다. 내가 행하는 선(善), 전도..., 이 바람은 아주 미약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누구에게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집회를 할 때마다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찬송하고 기도하니 옥문이 열렸고, 이를 본 간수가 변화되고, 간수로 인해 가족과 친지가 변화되고, 그 바람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태풍이 된 것이다.

한 사람의 날갯짓이 중요하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 사람 바울의 전도로 세계가 복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 초석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가족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전파되었다.

오 장로의 날갯짓은 미약한 것 같았으나 태풍과 같은 위력을 나타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계속 주를 위한 작은 날갯짓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믿음이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단적으로 쉽게 요약하신 말씀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言行心事)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춰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삶의

것이 믿음이란 말씀이 아주 쉽고 단순한 내용이지만,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목사님의 설교가 쉬우면서도 이를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보는 눈이 달라야 하고, 생각이 달라야 하고, 말이 달라야 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

어떤 후회를 할까? 성경을 보니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말년에 가졌던 통한의 후회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영화를 누리며 온갖 세상의 기쁨을 구해보았지만, 다 헛되고 헛되며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청년들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라.’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표현하며 모든 믿는 자들을 격려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

이 땅에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하자

봉우 이초석 목사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놓는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믿음 아닌가. 자신은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피붙이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 떼를 더 우선시하는 자세 말이다.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러해야 한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셨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6~27). 너 자신을 다 비우고 내 말에 순종, 복종하라는 것이다. 그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다. 너 자신을 비우고 네 온 영혼을 예수로 채우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믿는

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하늘나라로 옮기려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날에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며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의 상이라도 더 쌓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이시대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에 한눈팔지 말라는 거다. 그러면 후회할 일도 없고, 험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다. “많은 사람이 노년에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 두 가지가, 기회가 있을 때 더 공부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느라 바빠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갖지 못했다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 후회 없는 삶을 산 자의 모범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는 다 사도 바울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런 자세로 감당하면 후회 없는, 아니 오히려 기쁨과 기대에 충만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일조? 첫열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에배는 주님의 날입니다. 여기에 무슨 갈등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내 삶의 앞자리, 우선순위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로 살면 절대 후회할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우크라이나를 돕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10736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7:7~11)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지난주일, 우리는 이월드 목사가 춘계산상집회 때 설교한 것을 영상으로 같이 보았습니다. 이월드 목사는 제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이월드 목사가 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기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속을 무던히도 썩인 아들입니다. '저 아들은 내 종이다.'라는 주의 음성을 세 번이나 제가 들었기에 그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거센 반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비인 저를 들어 침대에서 던지질 않나, 심지어는 자살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때 아비인 제 심정이 어떠했는지 짐작하십니까. 저는 쏟아지는 빗속을 우산도 없이 걸으며 '주여, 자살만은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식이 지옥가는 걸 어찌 봅니까?' 하며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답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런 꿈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사나운 불도그가 들어와서 온 집안 식구들을 물어뜯고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나가는데, 그것이 획 돌아서니 제 둘째 녀석이 뛰니까? 아니나 다를까, 꿈을 꾸지 얼마 되지 않아 외국에 있던 녀석이 집에 왔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보니 이 녀석이 작정을 하고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꿈으로 미리 봤기에 일을 치르지 않으려고 녀석을 다독거렸더니 그 녀석하는 말, "집안을 확 뒤집어엎으려고 했습니다. 다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녀석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를 거쳐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를 싫어하던데, 이번 설교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을 존경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흑자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당신 아들이라 특별대우해서 영상까지 보여준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이 목사가 된 것을 보고 여러분도 깨달았으면 하는 겁니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어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왜 부도가 납니까? 값을 능력, 해낼 능력,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안 돼서 부도가 납니

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대상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더욱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더 못 줘서 몸살이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부도가 날래야 날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



총회장 이초석 목사

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7~11). 절대 부도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엡3:20)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 귀로 들 어보지 못한 것, 눈으로 보지 못한 것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이월드 목사가 설교 중에 그러데요. 어느 성도가 필리핀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 비자는 다 나왔는데 결혼할 여자의 비지만 안 나와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하자 그 성도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분명히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딱 일주일 기도했는데, 그 주 토요일에 비자가 나와 그 여자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월드 목사가 이 이야기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논쟁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더라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부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3~24)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치 아니하면' 부도가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면 부도난다는 것입니다. 직접

으로 도 말 씀 하 셴 습 니 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1:6~7). '이게 될까?', '이건 어렵지 않을까?' 이러면 부도난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여섯 바퀴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안 되나 봐.' 하고 멈추면 안 무너집니다. 요단강에 여섯 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몸에서 진물이 나니까 '거봐. 안 되잖아.' 하고 포기하면 기도에는 부도가 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일곱 바퀴를 다 돌면, 의심하지 않고 일곱 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집회를 10차례 걸쳐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여전히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잖아."라고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 절인 마태복음 21장 21절

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도는 하나님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내가 낸다는 겁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에 평화통일은 찾아옵니다.

다만 기다려야 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으니까요(전3:1). 씨를 뿌려도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막4:26~28)고 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싹으로 보이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 곧 응답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월드 목사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 이뤄졌지 않습니까?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어라.' 하는 말이 바로 이삭이 맺힐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불의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를까 기도는 반드시 이뤄집니다. 부도 안 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분명히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사업은 다시 일어나고,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찔렸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시126:1~3).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꿈꾸는 듯한 일, 대사(大事)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현실에 낙망하지 마세요. 제가 낙망하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월드 목사는 없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구까지 물이 차면 반드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는 국가, 기업, 가정, 개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은혜를 잊지 말자

몇 해 전에 딸 아이가 취업을 했다. 딸 아
이에게 취업 전부터 ‘첫열매는 당연히 하
나님 것이고, 두 번째 월급은 십일조 드리
고, 너를 교육시켜 주신 총회장님께 드려
야 한다. 세 번째 월급은 십일조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네 번째 월급은 십일조,
아빠 엄마, 다섯 번째 월급이 되어야 네 것
이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취업 후에 실천
을 시켰다. 첫 열매 드리고, 두 번째 월급
총회장님께 드리고, 세 번째 월급을 가지
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라고 월
급을 가져왔다. 그때 딸아이에게 기도해
주고 돌려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
빠가 드릴 테니 잘했다고 했다. 그 아이가
월급을 받아주면서 우는 것이었다. “왜 우
니?” 물어보니 그냥 눈물이 난다는 것이었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묵묵히 아빠 말을
따라준 딸아이가 고맙웠다. 아이에게 은
혜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요즘 세상이 은혜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부모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주변에 은
혜 주신 분들을 모르는 것 같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잊고 사는 모습들에 아픔을 느낀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흘려보
내라 했는데, 반대로 은혜는 물에 흘려보
내고 원수는 마음에 새기는 이들이 있다.
한번은 어떤 이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이 있다. 마음속에 화도 나고 그와 대면도
하기 싫었다. 그런데 우연히 일기를 보니
그가 내 편에서 나를 도운 적이 있었다. 쉽
지 않은 일이었는데 기꺼이 도와준 것이

고스란히 생각이 났다. ‘내 맘이 참 좀스
럽구나’ 하는 생각과 그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이었다.
흐르는 물 한 컵 대접받은 것을 은혜로 알
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 삶이 얼
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는가. 그런데 은
혜보다 미움이 가득하면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하겠는가.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은 이름 없는 유대인의 무명시다. 세
계 2차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연합군이 아
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 보고 그 지옥
과 같은 환경에 모두가 경악했다고 한다.
그때 연합군 장교 한 명이 수용소 숙소를
돌아보다 그곳 벽에 적혀있는 글을 보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겠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지옥과 같
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
낀 그분, 참으로 행복한 분이라 생각한다.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 인간적으로
는 불쌍하고 비참한 것 같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안에
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셨구나’라는 생
각이 든다(롬8:35~39).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다
(고전15:10). 내가 서 있는 땅, 은혜로 있
는 것이다. 은혜에 감사하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자.

장영국 목사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자

완벽하면 인정받을 것만 같고, 사랑받
을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완벽한 사람
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외에 완
벽하고 완전한 존재는 없다.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자.’
사실 이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다. 평
소 실수하면 스스로 질책을 강하게 하
는 성격이다. 물론 나는 완벽하지 않다.
오히려 매번 실수해서 부족함이 많다고
느낀다. 그러다 보니 나를 사랑하기보
다 나에게 대한 불만족이 크다. 나에게 만
족하기 위해 늘 채찍질하고, 더 멋지고
싶어서 고민도 하며 말한다. “넌 왜 그
렇게 부족하니?”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반성하고, 내일의 멋진 나를 그리며 살
아간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되레
약간의 허점이 보이는 사람이 편하지
않은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깔끔
하게 정돈되어서 잘 꾸며진 집에 가면

조금이라도 어지르면 안 될 것만 같아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지저분하지는 않
지만 어딘가 모르게 정리가 덜 된 친구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 사람도 그런 것 같다. 빈틈없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약간 틀어
보이는 사람이 다가가기 편하다. 사람
은 누구나 완벽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수는 늘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런 나
를 혼내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
랑해보려 한다.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
람이 되어보려 한다.
태초에 하나님은 예정하여 우리를 예
쁘게 지으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또한 나를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해
줘야 한다. 이 귀한 진리를 이제야 깨달
아간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씩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려 한다.
“사랑해!”

이인영 집사



:: 생명의 말씀 ::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어느 날 큰아이 옆에 있는 커다란 별레를
향해 약을 뿌리자 나뭇그라지는 꿈을, 또
바로 뒷날에는 아이가 담임 전도사님께
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소속 부서에서 힘
차게 간증하는 꿈을 꾸었다.
얼마 후, 하교하고 돌아오는 큰아이의 안
색이 좋지 않더니 그대로 눕는다. 가정에
배 시간이었지만 큰아이는 누워 있고 작
은 아이와 둘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누워서 끄끙 앓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며
“엄마, 귀신 좀 쫓아주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라고 외쳤다. 귀신을 쫓고 나서
머리를 만져보니 불덩이였다. 이젠 팬찰
다며 누워 쉬는 아이에게 집에 있던 해열
제를 먹이자 그대로 열도 내리고 폭 자
고 일어났지만, 등교 지침상 코로나 검사
를 한 결과, 양성이었다. 아무 증상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보며, 전날 예배
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음
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2, 3주쯤 후
꿈에서와 같이 아이가 부서 예배를 통해
짧지만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어
린아이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
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코로나 기간을 계기로 일상이 된 가정
예배는 어느새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

는 가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고, 무
엇보다 아이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
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보물 중의 보
물이 되었다. 무얼 잘못 먹었는지 입술까
지 창백해서는 배를 부여잡고 침대에 구
르던 아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자 언
제 그랬냐는 듯 맛있게 밥을 똑딱 떠먹
는가 하면, 차만 타면 멀미로 고생하더
니 예배하고 기도하고는 얼마 후 멀미가
사라졌다며 기도의 힘이라고 입술로 시
인하는 것을 볼 때, 육신의 부모인 나도
기쁘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실
까. 합심하여 기도하던 제목이 응답 되었
을 때, 두 눈이 동그라지며 정말 하나님
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뻐하는 모
습에서 웬지 빙그레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다.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의 모범이 이젠 우리 세대
뿐 아니라 어린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지
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고 나 또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도 생긴다.
아울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함을 깨닫고, 또 다짐하게 된다
(마18:20).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구도자 (求道者)

구도자(求道者), 도(道)를 구하는 자라
는 뜻이다. ‘도를 아십니까?’ 흔히 길거
리에서 들어보는 말이다. ‘길을 아느냐,
진리를 아느냐’는 물음이다.
그 길, 영생에 이르는 길, 세상만사 모
든 걸 초월한 경지에 이르는 길, 그 길
을 찾기 위해 유사 이래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던졌다. 그들의 치열한 고행과
수행은 오늘날 우리가 흉내 내기도 힘
들다. 석가,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또
무수한 선인들이 그 길을 찾기 위해 죽
음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늘의 뜻, 하늘
의 명을 알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 그리
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쳤다. 제자
들은 스승이 가뵈던 길까지는 가르침에
의해 따라가 보지만, 그 이후 가야 할 길
은 혼자 가야 한다. 다시 찾고, 다시 길
을 내야 한다. 그러나 어찌 그 길을 찾
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참 지
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을 마치고 천국 가는 그 어두
컴컴한 우주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
가. 인간의 힘과 의지로 갈 수 있는 길
이 아니다. 오직 의탁하고 주께서 손 내
밀어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다. 천사에

들려서 가는 길이다. 거지 나사로도, 선
지자 엘리야도 그렇게 천국을 향했다.
혼자 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
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
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
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
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
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
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
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1~6).
그 주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후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
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주님께서 안내
하실 것이다. 아멘.

이광주 목사
leekjlkj@naver.com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빛이 되리라::

하루 한 장

우리 교회에는 매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으로도 부족해 매일 손으로 쓰는 장로님이 계시지요. 아마도 여러 성도님이 그러실 듯합니다. 반면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독한 적이 없습니다. 심령에 새기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있지만, 요한계시록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읽은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네요.

저는 매일 아침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가 아니라 성경 말씀 딱 한 장이에요. 어제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으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을 읽고 내일은 창세기 1장을 읽는 식입니다. 성경책을 펼쳐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 한 장은 정말 짧습니다. 곱씹어 읽어도 5분을 채 넘기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 읽는 습관은 재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교회신문과 함께 성경읽기표를 나눠주십니다. 그 표에는 365개의 날짜와 요일, 그날 읽을 성경말씀 한 장과 읽었는지 체크하는 빈칸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역대상 24장을 읽기 시작해 하루 한 장씩 읽었더니 오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읽기표대로 읽는다면 올해 말에는 여호수아 5장을 읽고 내년 초에는 마침내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지만 매번 보름도 못 가서 흐지부지 되곤 했었습니다. 저에겐 하루 한 페이지도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 년 안에 성경을 통독하기란 너무 벅찬 목표였지요. 읽어야 할 분량이 꽤 많아서 하루만 밀려도 다음날 읽을 분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루에 말씀 한 장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웬만해서는 반의반 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하루 한 장씩 읽었더니 너무나도 쉽게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후 읽기표의 빈칸에 ‘v’ 자로 표시하는 쾌감도 꽤 큼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침대맡에 둔 성경을 읽습니다. 요즘은 이 루틴에 찬송가 부르기가 추가되었

습니다. 작은 아침 예배로 변한 거지요. 기도하고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성경을 한 장 읽고, 읽은 구절에서 오늘 꼭 실천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마음에 새긴 구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매일 밤 돌아해보면 죄를 짓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때 묻은 두루마기를 빨 듯 회개하여 회고 정결한 두루마기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날이 많아서 매일 반성하고 회개하는 날들의 연속이지만, 그 또한 성경을 읽음으로써 죄가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루 한 장, 하루 5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저의 하루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읽기가 아직 습관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하루 딱 한 장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말이예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기도원 집회 후

하나님의 은혜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확실히 과거에 하루씩 참석하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끝 같은 메시지의 홍수 속에 무엇을 나에게 1순위로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보았다. 그래서 집회에 쏟아진 많은 메시지를 종합하고, 또 종합하고 최종 요약해서 가장 적합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양을 늘리고 기도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도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정확히 깨달아졌다. 늘 들어서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다.

세계 최고의 부호 워런 버핏이 주주 서한에서 한 이야기가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원칙을 묻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주식을 사서 길게 보유하라. 주식 고르는 안목이 없다면 S&P500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에 장기 투자하라.’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실제로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건 이미 알고 있으니 다른 더 특별한 걸 이야기해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복 받는 다른 많은 비결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질 높은 기도를 해야 더 성령 충만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본 원칙에 답이 있다고 느낀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해보려고 애쓰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확실하고 빠르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던 우리가 이젠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한다. 말은 자리에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넘치도록 준비된 성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장명훈 집사

JC ACADEMY (유튜브 생방송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드림스퀘어) 문의 02. 533. 9191

:: 짧은 이야기 ::

최대의 수비

총회장 목사님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집회를 가나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도 방해세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단이 왔으니 조심하라’는 광고가 교포신문에 실렸습니

다.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목사님을 초대한 김 박사님의 대응책은 남달랐습니다. 그분은 신문 전면광고를 주문하여, “독수리와 참새가 어떻게 다른지 와보라.”라는 대문짝만한 광고를 실었고, 순식간에 모든 파문을 잠재우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 몰려들어 집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화위복을 맞은 셈입니다. 최대의 수비는 최대의 공격입니다. 추울 때 이불 속에만 들

어앉아 있으면 더욱 몸이 움츠러들 뿐입니다. 추울 때일수록 나가 뛰면 땀이 나고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담대하게 앞으로 진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닦혔습니까?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쳐 해결하십시오. 그것은 골리앗처럼 무너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최대의 수비는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 영생에 이르는 길::

참된 스승은 누구일까?

논어에 ‘삼인행 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인데, 해석을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세 사람 중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점을 배우면 되고, 나보다 못한 점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겠다는 점을 배우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스승은 당연히 목사님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그 모습을 닮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목사님께서도 성경 말씀(디도서2:7)처럼 스스로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번 기도원 집회를 앞두고 순교하신 오

치환 장로님을 향한 사랑이 송사에 구구절절 담겨있었으며, 가족들을 위로해주는 모습이 정말 참된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길어야 사나흘 있다 가는 기도원에서 성도들의 속소 때문에 이리저리 부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절로 마음이 숙여집니다. 참 예수님을 많이도 닮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자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마저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요 13:1~11).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승의 삶을 살라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본이 될 만한, 우러러볼 만한 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건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옛 모습에는 본이 될 만한, 선망이 될 만한 어떤 모습도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갈5:22~23).

참된 스승은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에 본이 되는 참된 스승의 삶을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대화
realdialog@naver.com

